305장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425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6월 21일(목) 기도 담당 : 안상은 집사

2018년 6월 20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5장	다 같 이
기 도		전병천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 23장 3~10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2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23:3~10 >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20일(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아는 신앙인들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반도 땅의 평화를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분단된 한반도가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문안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